

## 중국 연변지역의 한족, 조선족과 한국인의 건강행태 비교 연구

이선동<sup>1</sup> · 최찬호<sup>2</sup> · 장경호<sup>3</sup> · 신헌태<sup>1</sup>

<sup>1</sup>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대구대학교 보건과학부, <sup>3</sup>중국연변의학원

##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Lifestyle Behaviors among Chinese, Korean Chinese and Koreans

Sun-Dong Lee,<sup>1</sup> Chan-Ho Choi,<sup>2</sup> Kyung-Ho Chang<sup>3</sup> & Heon-Tae Shin<sup>1</sup>

<sup>1</sup>Dep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sup>2</sup>Dept of Public Health Science, Dae Gu University & <sup>3</sup>Yen Byun University(China)

###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health related behaviors among Chinese, Korean Chinese in a Yanbian Province with a population of mainly Korean descendents and Koreans in Kangwon Province, Korea. Cross-sectional surveys were used to identify self-rated health, smoking, alcohol use, exercise and other lifestyle variables. A total of 739 Chinese, 663 Korean Chines, and 639 Koreans were survey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ew Korean Chinese(13.9%) reported they were healthy compared with Chinese(38.7%) and Koreans(36.3%).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smoking by ethnic groups. More Koreans(48.5%) and Chinese Koreans(44.5%) reported drinking alcohol compared with Chinese(37.2%)( $p < .001$ ). Compared Chinese and Korean Chinese, fewer Koreans reported regular diet, exercise, health screening, and deep sleeping patterns. The lifestyl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evalence of disease were different by ethnic groups. In conclusion, ethnicity was shown to be an independent factor in relation to self-rated health, alcohol use, and other health lifestyle behaviors.

**Key words** : Chinese, Korean Chinese, Koreans, health lifestyle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el : 82-33-730-0665. E-mail : sdlee@mail.sangji.ac.kr

## I. 서론

중국의 연변지역은 한족과 같이 거주하는 조선족 자치주로서 19세기 이후 조선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온 이민 집단 거주 지역이다(안현옥 등, 1998 ; 이호영, 신승철, 이동근, 1994).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그 인구는 2백만명이나 되며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해 간 역사는 100여년된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사회경제 및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선족의 건강상태는 한국인과 다르다(이선희 등, 2001). 그러나 중국 조선족은 100여년 이상 중국 내 생활을 하는 동안 중국의 풍습에 융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적 생활풍습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이호영, 신승철, 이동근, 1994 ; 안현옥 등, 1998), 한족과는 구별된다.

한국인,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은 건강상태가 다르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의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Lalonde(1976)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16.7%, 환경적 요인이 33.3%, 생활습관이 33.3%, 의료 서비스를 16.7%로 제시한 바 있다(문상식, 이시백,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20%), 환경적 요인(20%), 개인의 생활습관(52%), 의료 서비스(8%)로 구분된다는(O'Donnell, 1999) 연구결과로 미루어 개인의 생활습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전적 특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과 조선족의 건강상태는 다를 것이며,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요인이나 전통적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조선족과 한족은 구별될 것이다. 방금녀 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위암 사망률은 한국인(31.6명), 조선족

(32.8명), 연변 한족(30.0명)이 한족(18.3명)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조선족이 연변에 이주한 이후에도 한국인의 식이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암 사망률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조선족이 같은 지역에 사는 한족의 식이습관에 영향을 주어 연변 한족의 위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한족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암 사망률은 연변 조선족(34.8명), 한국인(18.7명), 연변 한족(17.1명), 한족(16.8명)의 순으로 높았다. 폐암 사망률의 경우 한족과 연변 한족이 한국과 연변 조선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식도암 사망률은 한족이 가장 높다(방금녀 등, 1996). 문용(1996)의 조선족과 한족의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남녀 모두에서 조선족이 한족보다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 중 조선족의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한족의 2.9배, 여자는 한족의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민족이라도 사망률이 다르고, 동일한 경제·사회 환경하에서도 사망률이 다른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나 퇴행성 질환의 경우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으로 밝혀지고 있다. 생활양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민자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Uitenbroek, Kerekovska, Festchieva, 1996 ; Joffres, MacLean, 1999), 조선족과 한국인의 사망양상 또는 이환양상과 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장기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건강행태와 질병 이환양상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비교적 쉽게 조사가 가능한 민족별 건강수준인식, 흡연, 음주, 건강행태 등의 생활양식을 조사하고 질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적 특성이 같은 한국인과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과 조선족의 건강행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구

체적 목적으로 민족간 건강수준, 흡연·음주습관, 건강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 중 어떤 건강행태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는지를  $\chi^2$ 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성, 연령)와 건강행태가 한족, 조선족 및 한국인의 질병 이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단면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중국의 한족, 조선족, 한국인 사이의 보건행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국의 강원도(원주시 중심)지역, 중국의 연변(延邊)지역에서 조사하였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조사 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직접 설문지와 필기도구를 배분한 후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자의로 기재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기간은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한국인 639명, 중국의 조선족 663명과 한족(중국인) 739명으로 총 2,0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전부호화 및 편집, 부호화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한국인, 조선족, 한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된 건강수준, 민족별 흡연 음주습관, 민족별 건강행태는 빈도분석(빈도, 백분율)과 민족별 차이가 있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으로 남성이 1,049명으로 전체의 51.4%, 여성은 992명으로 전체의 48.6%로서 남성이 조금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았다. 주거지는 한족(71.6%), 조선족(77.1%), 한국인(81.8%) 모두 중소도시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었으며 가족수가 2~3인인 경우 한족은 67.9%, 조선족은 61.8%, 한국인은 49.6%로 응답하여 한족이나 조선족이 한국인에 비해 더 가족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이는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77.5%)이 기혼자였으며, 교육수준은 한족(46.5%)과 조선족(35.8%)의 경우 중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한국인의 경우 고졸(36.5%)이나 대졸(4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한국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00$ ).

### 2. 민족간 인지된 건강수준 및 흡연·음주 행태

한국인과 한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38.7%, 36.3%인데 비하여 조선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군이 13.9%였으며, 병 없이 허약하다고 하는 비율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반면에 질병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로 가장 높게 었다(p=.000, <표 2> 참조).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 %(명))

| 항 목    | 민족(N=2,041) |            |            | 전체(명)       | p 값  |
|--------|-------------|------------|------------|-------------|------|
|        | 한족(n=739)   | 조선족(n=663) | 한국인(n=639) |             |      |
| 성 별    |             |            |            |             |      |
| 남자     | 52.4        | 45.1       | 56.8       | 51.4(1,049) | ns   |
| 여자     | 47.6        | 54.9       | 43.2       | 48.6 (992)  |      |
| 연 령    |             |            |            |             |      |
| 10대    | 1.4         | 0.3        | 1.1        | 0.9 (19)    | ns   |
| 20대    | 28.4        | 19.6       | 27.2       | 25.2 (514)  |      |
| 30대    | 25.6        | 25.8       | 25.8       | 25.7 (525)  |      |
| 40대    | 21.9        | 21.3       | 22.2       | 21.8 (445)  |      |
| 50대    | 14.2        | 17.9       | 14.9       | 15.6 (319)  |      |
| 60세 이상 | 8.5         | 15.1       | 8.8        | 10.7 (219)  |      |
| 주거지    |             |            |            |             |      |
| 대도시    | 5.3         | 2          | 9.7        | 5.7 (114)   | ns   |
| 중소도시   | 71.6        | 77.1       | 81.8       | 76.6(1,544) |      |
| 읍면     | 23          | 20.9       | 8.5        | 17.8 (358)  |      |
| 가족수    |             |            |            |             |      |
| 2~3인   | 67.9        | 61.8       | 49.6       | 60.2(1,229) | .000 |
| 4~5인   | 28.1        | 32.6       | 42.1       | 34 (693)    |      |
| 6인 이상  | 3.7         | 5.6        | 8.1        | 5.7 (116)   |      |
| 결혼상태   |             |            |            |             |      |
| 기혼     | 78          | 82.3       | 71.9       | 77.5(1,567) | ns   |
| 미혼     | 22          | 17.7       | 28.1       | 22.5 (455)  |      |
| 학 력    |             |            |            |             |      |
| 문맹     | 2.5         | 1.5        | 1.3        | 1.8 (36)    | .000 |
| 국졸     | 0.8         | 1.2        | 6.5        | 2.7 (55)    |      |
| 중졸     | 46.5        | 35.8       | 8.8        | 31.2 (628)  |      |
| 고졸     | 22.5        | 28.8       | 36.5       | 28.9 (582)  |      |
| 대졸     | 27.7        | 32.6       | 46.9       | 35.3 (710)  |      |

ns=not significant

<표 2> 연구대상자의 인지된 건강수준

(단위 : %)

| 인지된 건강수준   | 민족(N=2,041) |            |            | 전체   | p값   |
|------------|-------------|------------|------------|------|------|
|            | 한족(n=739)   | 조선족(n=663) | 한국인(n=639) |      |      |
| 건강         | 36.3        | 13.9       | 38.7       | 29.7 | .000 |
| 병 없이 허약    | 32.0        | 56.0       | 23.2       | 37.1 |      |
| 그저 그렇      | 19.8        | 17.8       | 23.7       | 20.4 |      |
| 질병 있음      | 8.9         | 9.4        | 13.7       | 10.6 |      |
| 병을 앓고 회복 중 | 3.0         | 2.9        | 0.6        | 2.2  |      |

주 : ns= not significant

〈표 3〉 민족별 흡연·음주 행태

(단위 : %)

|      | 민족(N=2,041) |            |            | 전체   | p 값  |
|------|-------------|------------|------------|------|------|
|      | 한족(n=739)   | 조선족(n=663) | 한국인(n=639) |      |      |
| 흡연여부 |             |            |            |      |      |
| 예    | 30.0        | 28.9       | 32.1       | 30.3 | ns   |
| 아니오  | 70.0        | 71.1       | 67.9       | 69.7 |      |
| 음주여부 |             |            |            |      |      |
| 예    | 37.2        | 44.5       | 48.8       | 43.4 | .000 |
| 아니오  | 62.8        | 55.5       | 51.2       | 56.6 |      |

주 : ns= not significant

매일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흡연한다는 매일 흡연자의 경우 한족 30.0%, 조선족 28.9%, 한국인 32.1%로 민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음주율은 한국인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조선족이 44.5%, 한족이 37.2%의 순으로 나타나 민족간 차이를 보였다(p < .000, 〈표 3〉 참조).

### 3. 민족별 건강행태

〈표 4〉는 민족별로 평소 건강행태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한족의 경우 조선족이나 한국인에 비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98.8%), 규칙적인 소량의 식사(92.5%), 운동(85.8%), 적당한 성관계(82.8%), 깊은 수면(94.5%), 대소변에 문제가 없음(97.5%)에 관한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제일 높았고, 항상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문항에는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하고 있었다. 조선족의 경우 한족과 비슷한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61.2%)을 하거나 사회에서 양보나 협력(97.9%)을 하는 비율은 다른 민족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한족이나 조선족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규칙적인 소량의 식사(60.7%), 운동(39.6%),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39.6%), 깊은

수면(73.9%)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항상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인의 건강행태가 한족과 조선족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0, 〈표 4〉 참조).

### 4. 유병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 1) 한족의 유병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한족에서 질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하여 성, 연령, 건강행태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40대 미만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2.74배 높았으며(p < .001),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긍정적 생활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4.02배 높았으나 경계역상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p = .053), 규칙적인 소량의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규칙적인 소량의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질병이 있을 위험이 2.34배 높게 나타났으며(p < .05), 나머지 건강행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2) 조선족의 유병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조선족에서 질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하여 성, 연령, 건강행태 변수들을 독립

〈표 4〉 민족별 건강행태 (N=2,041)

(단위 : %(명))

|                  | 건강행태 정도 |      |      | 계(명)       | p 값  |
|------------------|---------|------|------|------------|------|
|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      |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  |         |      |      |            |      |
| 한족               | 98.8    | 1.1  | 0.1  | 100.0(736) | .000 |
| 조선족              | 98.2    | 1.8  | 0.0  | 100.0(663) |      |
| 한국인              | 94.3    | 5.2  | 0.5  | 100.0(630) |      |
| 정시에 정량을 소식한다     |         |      |      |            |      |
| 한족               | 92.5    | 7.3  | 0.1  | 100.0(737) | .000 |
| 조선족              | 86.0    | 13.1 | 0.9  | 100.0(663) |      |
| 한국인              | 60.7    | 34.3 | 4.9  | 100.0(629) |      |
| 운동을 한다           |         |      |      |            |      |
| 한족               | 85.8    | 12.3 | 1.9  | 100.0(732) | .000 |
| 조선족              | 81.9    | 14.4 | 3.6  | 100.0(659) |      |
| 한국인              | 45.6    | 34.2 | 20.2 | 100.0(629) |      |
|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         |      |      |            |      |
| 한족               | 59.9    | 32.6 | 7.5  | 100.0(733) | .000 |
| 조선족              | 61.2    | 32.1 | 6.7  | 100.0(660) |      |
| 한국인              | 39.6    | 43.2 | 17.2 | 100.0(623) |      |
| 사회에서 양보와 협력을 한다  |         |      |      |            |      |
| 한족               | 97.8    | 1.5  | 0.7  | 100.0(737) | .000 |
| 조선족              | 97.9    | 1.7  | 0.5  | 100.0(658) |      |
| 한국인              | 91.5    | 7.3  | 1.1  | 100.0(626) |      |
| 평소에 성관계를 적당히 한다  |         |      |      |            |      |
| 한족               | 82.8    | 10.7 | 6.5  | 100.0(711) | .000 |
| 조선족              | 72.5    | 18.7 | 8.8  | 100.0(636) |      |
| 한국인              | 79.7    | 11.0 | 9.3  | 100.0(582) |      |
| 평소에 깊은 잠을 잔다     |         |      |      |            |      |
| 한족               | 94.5    | 5.4  | 0.1  | 100.0(722) | .000 |
| 조선족              | 90.5    | 8.9  | 0.6  | 100.0(662) |      |
| 한국인              | 73.9    | 23.1 | 3.0  | 100.0(631) |      |
| 대소변에 문제가 없다      |         |      |      |            |      |
| 한족               | 97.5    | 2.2  | 0.3  | 100.0(723) | .000 |
| 조선족              | 94.0    | 5.9  | 0.2  | 100.0(663) |      |
| 한국인              | 84.2    | 13.6 | 2.2  | 100.0(627) |      |
| 항상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 |         |      |      |            |      |
| 한족               | 72.0    | 23.7 | 4.4  | 100.0(710) | ns   |
| 조선족              | 71.3    | 25.3 | 3.4  | 100.0(656) |      |
| 한국인              | 77.1    | 18.9 | 4.0  | 100.0(620) |      |

주 : ns= not significant

〈표 5〉 한족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beta$ | S.E. | Wald   | p value | Odds Ratio | Odds Ratio lower | 95% CI Upper |
|-----------------|---------|------|--------|---------|------------|------------------|--------------|
| 성               | -.003   | .230 | .000   | ns      | .997       | .635             | 1.566        |
| 연령              | 1.009   | .241 | 17.604 | .000    | 2.743      | 1.712            | 4.396        |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 | 1.391   | .720 | 3.732  | .053    | 4.019      | .980             | 16.484       |
| 정시에 정량을 소식      | .849    | .351 | 5.834  | .016    | 2.336      | 1.173            | 4.652        |
| 운동              | .425    | .317 | 1.791  | ns      | 1.529      | .821             | 2.847        |
| 건강을 위해 병원 방문    | -.404   | .252 | 2.559  | ns      | .668       | .407             | 1.095        |
| 사회에서 양보와 협력     | -.157   | .862 | .033   | ns      | .855       | .158             | 4.625        |
| 적당한 성관계         | .176    | .310 | .323   | ns      | 1.193      | .649             | 2.191        |
| 깊은 수면           | .097    | .441 | .048   | ns      | 1.102      | .464             | 2.617        |
| 대소변에 문제가 없음     | .665    | .620 | 1.152  | ns      | 1.945      | .577             | 6.554        |
| 항상 몸이 피곤함       | -.245   | .279 | .774   | ns      | .783       | .453             | 1.351        |
| 상수              | -2.494  | .251 | 98.715 | .000    | .083       | -                | -            |

주 : 성(여자 0, 남자 1), 연령(40대 미만 0, 40대 이상 1) ;

건강행태 변수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항상 몸이 피곤함(그렇다 0, 그렇지 않다 1)

ns = not significant

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40대 미만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2.15배 높았고( $p < .01$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긍정적 생활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4.16배 높았으나 경계역상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p = .057$ ).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3.67배 높게 나타났고( $p < .001$ ),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질병이 있을 위험이 10.62배 높았으며( $p < .001$ ), 나머지 건강행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한국인의 유병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한국인에서 질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 연령, 건강행태 변수들을 독립

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40대 미만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3.37배 높았으며( $p < .001$ ), 건강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방문한 다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0.43배로 낮았다( $p < .001$ ).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소변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3.37배 높았고( $p < .001$ ), 나머지 건강행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IV. 논 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분포를 보면 성, 연령, 주거지, 결혼상태의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정도에서는 한국

인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선족이 높았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조선족에게도 영향을 주어 조선족이 한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다(이호영, 신승철, 이동근, 1994 ; 안현옥 등, 1998).

〈표 6〉 조선족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beta$ | S.E.  | Wald   | p value | Odds Ratio | Odds Ratio lower | 95% CI Upper |
|-----------------|---------|-------|--------|---------|------------|------------------|--------------|
| 성               | -.375   | .276  | 1.851  | ns      | .687       | .400             | 1.180        |
| 연령              | .767    | .289  | 7.041  | .008    | 2.153      | 1.222            | 3.794        |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 | 1.424   | .749  | 3.620  | .057    | 4.155      | .958             | 18.018       |
| 정시에 정량을 소식      | .102    | .377  | .074   | ns      | 1.108      | .529             | 2.319        |
| 운동              | .021    | .342  | .004   | ns      | 1.021      | .523             | 1.995        |
| 건강을 위해 병원 방문    | .233    | .281  | .687   | ns      | 1.262      | .728             | 2.190        |
| 사회에서 양보와 협력     | -4.815  | 9.569 | .253   | ns      | .008       | .000             | 11.325       |
| 적당한 성관계         | .038    | .306  | .015   | ns      | 1.038      | .569             | 1.893        |
| 깊은 수면           | 1.300   | .369  | 12.435 | .000    | 3.669      | 1.781            | 7.556        |
| 대소변에 문제가 없음     | 2.363   | .416  | 32.330 | .000    | 10.623     | 4.704            | 23.990       |
| 항상 몸이 피곤함       | .446    | .295  | 2.276  | ns      | 1.562      | .875             | 2.787        |
| 상수              | -3.033  | .346  | 76.813 | .000    | .048       | -                | -            |

주 : 성(여자 0, 남자 1), 연령(40대 미만 0, 40대 이상 1) ;  
 건강행태 변수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 ~ 항상 몸이 피곤함(그렇다 0, 그렇지 않다 1)  
 ns = not significant

〈표 7〉 한국인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beta$ | S.E. | Wald   | p value | Odds Ratio | Odds Ratio lower | 95% CI Upper |
|-----------------|---------|------|--------|---------|------------|------------------|--------------|
| 성               | -.465   | .248 | 3.530  | .060    | .628       | .386             | 1.020        |
| 연령              | 1.214   | .263 | 21.321 | .000    | 3.366      | 2.011            | 5.633        |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 | .115    | .479 | .058   | ns      | 1.122      | .439             | 2.869        |
| 정시에 정량을 소식      | .051    | .268 | .036   | ns      | 1.052      | .623             | 1.779        |
| 운동              | .267    | .256 | 1.091  | ns      | 1.306      | .791             | 2.157        |
| 건강을 위해 병원 방문    | -.844   | .255 | 10.915 | .001    | .430       | .261             | .709         |
| 사회에서 양보와 협력     | .196    | .407 | .232   | ns      | 1.217      | .548             | 2.704        |
| 적당한 성관계         | .382    | .284 | 1.802  | ns      | 1.465      | .839             | 2.558        |
| 깊은 수면           | .107    | .284 | .143   | ns      | 1.113      | .638             | 1.944        |
| 대소변에 문제가 없음     | 1.215   | .291 | 17.503 | .000    | 3.372      | 1.908            | 5.959        |
| 항상 몸이 피곤함       | -.614   | .349 | 3.090  | ns      | .541       | .273             | 1.073        |
| 상수              | -2.216  | .324 | 46.857 | .000    | .109       | -                | -            |

주 : 성(여자 0, 남자 1), 연령(40대 미만 0, 40대 이상 1) ;  
 건강행태 변수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 ~ 항상 몸이 피곤함(그렇다 0, 그렇지 않다 1)  
 ns=not significant



건강수준 인식에서는 한족과 한국인은 건강하다는 비율이 비슷하나 조선족의 경우 병 없이 허약하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질병 여부 조사에서는 한국인보다 유병률이 낮았지만 한족보다 약간 높았다. 안현옥 등(1998)의 한족과 조선족의 건강수준과 생활양식간의 관련성 연구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고, 유병률도 높았다. 한국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반면에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매일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매일 흡연자는 한족 30.0%, 조선족 28.9%, 한국인 32.1%로 민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음주율은 한국인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조선족이 44.5%, 한족이 37.2%의 순으로 나타나 민족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1999)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매일 흡연자가 33.5%였으며, 현 음주자의 50.7%가 한 달에 1~5회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의 자료와 비슷하였다. 안현옥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한족과 조선족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주율은 조선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이주한 후에도 한국인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한족보다는 한국인과 비슷한 음주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별로 평소 건강행태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한족의 경우 조선족이나 한국인에 비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98.8%), 규칙적이고 소량의 식사(92.5%), 운동(85.8%), 적당한 성관계(82.8%), 깊은 수면 상태(94.5%), 대소변에 문제가 없다(97.5%)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항상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문항에는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족의 경우 한족과 비슷한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 중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61.2%)을 하거나 사회에서 양보나 협력(97.9%)을 하는 비율은 다른 민족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한족이나 조선족에 비해 규칙적이고 소량의 식사(60.7%), 운동(39.6%),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39.6%), 평소에 깊은 잠(73.9%)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한국인의 경우 식습관, 운동, 수면에 대한 건강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1999)의 조사에서도 한국인은 규칙적인 운동(일주일에 3회 이상, 20분 이상)을 실천하는 비율이 6.2%로 매우 낮고 때때로 운동을 하는 운동 실천율은 26.3%로 조사되어 한국인의 운동실천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질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 연령, 건강행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0대 미만에 비하여 40대 이상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한족은 2.74배, 조선족은 2.15배, 한국인은 3.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한족과 조선족의 경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이 긍정적 태도를 갖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을 위험이 더 높았다. 한족은 정시에 정량을 소식하지 않는 사람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높았으나 다른 민족은 유의하지 않았다. 조선족과 한국인의 경우 대소변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질병에 있을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한족은 유의하지 않았다. 조선족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질병이 있을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민족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인은 건강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질병이 있을 위험이 0.43배로 낮았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 이유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여서 병원을 방문

하지 않거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연변지역의 한족, 조선족과 강원도 지역의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음주, 건강행태 등을 민족별 비교 분석하였고 질병에 미치는 건강행태를 규명하려고 분석하였으나 본 자료의 특성이 자기기입식 단면적 조사 연구이므로 건강행태가 질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강행태로 인하여 질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습관이 변화되었는지의 판단은 알 수 없었으나 상호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한족 739명, 조선족 663명, 한국인 639명을 대상으로 유전적 특성이 같은 한국인과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한족과 조선족의 건강행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질병과 관련된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민족별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과 한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38.7%, 36.3%인데 비하여 조선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3.9%였으며, 병 없이 허약하다고 하는 비율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0$ )

둘째, 매일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흡연한다는 매일 흡연자의 경우 한족 30.0%, 조선족 28.9%, 한국인 32.1%로 민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음주율은 한국인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조선족이 44.5%, 한족이 37.2%의 순으로 나타나 민족간 차이를 보였다( $p < .000$ ).

셋째, 민족별로 평소 건강행태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한족의 경우 조선족이나 한국인에 비

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98.8%), 규칙적이고 소량의 식사(92.5%), 운동(85.8%), 적당한 성관계(82.8%), 깊은 수면 상태(94.5%), 대소변에 문제가 없다(97.5%)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족의 경우 한족과 비슷한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61.2%)하거나 사회에서 양보나 협력(97.9%)을 하는 비율은 다른 민족보다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은 한족이나 조선족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를 보였다. 특히 규칙적인 소량의 식사(60.7%), 운동(39.6%),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39.6%), 깊은 수면상태(73.9%)의 비율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 .000$ ).

넷째, 질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 연령, 건강행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한족의 경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와 정시에 정량을 소식하는 사람이 질병의 위험이 낮았다. 조선족은 긍정적 생활태도를 갖는 사람, 깊은 수면, 대소변에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이 질병의 위험이 낮았다. 한국인의 경우 깊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질병의 위험이 낮았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 한족이나 조선족에 비하여 한국인의 경우 음주, 식습관, 운동, 수면에 대한 건강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선족의 경우 인지된 건강수준이 낮았고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민족별 건강행태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각 민족별로 다른 건강행태를 보이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책이나 보건교육 프로그램 계획시 민족별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별 건강행태에 따라 어떤 질환의 양상을 보이는데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문상식, 이시백(2001).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 검진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건강행위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3), 11-36.
- 문 용. 한국인과 중국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사망원인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방금녀, 최보울, 공용린. 한국인,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및 한족, 중국인의 악성종양 사망률 비교연구. 한국역학회지, 1996, 18(1), 45-54.
- 보건복지부(1999). 98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의식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현옥, 김기순, 류소연, 이철갑, 박 종, 김양옥, 노희경 (1998).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및 한족의 건강수준인식과 생활양식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학회지, 31(4), 828-843.
- 이선화, 백희영, 김정순, 문 용, 정효지(2001).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성인과 한국 구리지역 성인의 식생활 양식 비교. 16(4), 341-353.
- 이호영, 신승철, 이동근(1994).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토담. pp. 11-37, 91-159.
- Joffres MR, MacLean DR.(1999).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between Quebec and other Canadian provinces : The Canadian heart health surveys. Ethn Dis, 9(2), 246-53.
- O'Donnell M(1999). Health promotion : An emerging strategy for health enhancement and business cost savings in Korea, unpublished report.
- Uitenbroek DG, Kerekovska A, Festchieva N. (1996). Health lifestyle behaviour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study of Varna, Glasgow and Edinburgh. Soc Sci Med, 43(3), 367-77.
- Williams R, Shams M.(1998). Generational continuity and change in British Asian health and health behaviour. Epidemiol Community Health, 52(9), 558-63.